

오키나와 전투와 제주 4·3사건을 둘러싼 기억투쟁

-오시로 다쓰히로 『신의 섬』과 현기영의 「순이 삼촌」을 중심으로

손 지 연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이 글은 오키나와와 제주가 갖는 특수한 역사와 문학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전쟁말기에 벌어진 오키나와 전투와 1948년 전쟁에 준하는 무차별적 폭력사태가 있었던 제주 4·3사건은 국가권력의 변방에 위치한 두 섬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사태의 비극을 정면에서 다룬 기념비적인 작품 오시로 다쓰히로의 『신의 섬』과 현기영의 「순이 삼촌」을 비교 분석하여 오키나와 전투와 4·3을 둘러싼 기억투쟁의 차이와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를 문제 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두 소설이 ‘집단지결’과 ‘집단학살’이라는 금기의 기억에 주목하고 폭로한 점에서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기억투쟁의 향방(비전)을 제시하는 방식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후의 작품에서 현기영은 국가폭력 사태에 분노하고 고발하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용서와 화해라는 예정된 수순을 밟아간 반면, 오시로외의 경우 본토에 반응하는 형태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은 그러한 예증이다.

주제어 : 오키나와 전투, 제주 4·3사건, 집단지결, 집단학살, 기억투쟁

1. 서론

오키나와 전투가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나아가 오키나와 내부의 갈등을 노정하였다면, 제주 4·3사건¹⁾은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 이데올로기와 변방의 섬 제주와의 갈등, 그리고 도민 내부의 불가항력적인 불신을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역사적 자리매김이 끝나지 않았고 냉전의 상징인 지지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무엇보다 두 섬을 아우르는 가장 큰 공통점은 ‘집단지결’과 ‘집단학살’이라는 비극적 체험과 그로 인한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들 수 있다. 전후 오키나와 문학과 4·3문학의 모태는 이 비극적 체험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시로 다쓰히로의 『신의 섬(神島)』(1968)²⁾과 현기영의 「순이 삼촌」(1978)은 바로 이 오키나와 전투와 4·3사건을 소설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또한 두 작품 공히 ‘집단지결’과 ‘집단학살’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비껴가지 않고 정면에서 다루고 있으며, 가해와 피해, 억압과 저항, 자발과 강제라는 이항대립구도가 갖기 쉬운 일면적 묘사를 피하고 복잡하게 뒤엉킨 균열과 역설적 함의를 드러내고 있는 점에서도 공통된다.

오키나와 문학 관련 연구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아직 미비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본의 경우 『신의 섬』은 간행 이래 50여 년이 흐르고 있지만 문단의 주목을 받은 적도 연구대상이 된 적도 없다. 작가 오시로 자신은 “본토의 일본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모양”³⁾이라는 완곡한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집단지결에 대한 인식 부재와 철저한 무관심 탓으로 보인다. 문학

1) ‘제주 4·3사건’은 2000년 1월 공포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공식 명칭이다. 이 외에도 ‘제주 4·3항쟁’, ‘제주 4·3폭동’ 등 관점에 따라 달리 부르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제주 4·3사건’의 약칭으로 ‘4·3사건’ ‘4·3’ 등을 혼용해 사용하기로 한다.

2) 소설의 원제목은 ‘가미시마(神島)’다. ‘가미시마’라는 명칭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공(상상)의 섬’으로 오키나와의 비극을 압축하고 있다. 최근 필자가 한국어로 번역·소개 하면서 ‘신의 섬’이라는 제목으로 바꾼 것은 이러한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다(오시로 다쓰히로, 『신의 섬』, 『지구적 세계문학』 6호, 손지연 옮김, 글누림, 2015 가을).

3) 김재용, 「오시로 다쓰히로 소설가와와의 대담」, 『지구적 세계문학』 6호, 글누림, 2015 가을, p.146.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사회·역사학 분야로 시선을 돌리면 이 소설의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집단자결과 관련한 주목할 만한 논의들이 집적되어 왔다. 특히 오키나와 전투에서의 주민학살의 논리, 집단자결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 재조명한 선행연구들로부터 많은 시사를 받았다.⁴⁾

이에 반해 「순이 삼촌」에 대한 평가는 문학 분야는 물론 4·3진상규명운동사에서도 중요하게 자리매김 되고 있다.⁵⁾ 최근 부분적이긴 하나 오키나와 문학과와의 비교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주로 한국어 번역 소개된 메도루마 슌(目取真俊), 마타요시 에이키(又吉榮喜)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논의들로, 오키나와 문학과 4·3문학의 관련성을 사유하는 데에 흥미로운 논점을 제공한다.⁶⁾ 그러나 (언어의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오시로의 『신의 섬』은 아직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필자는 작가 오시로와의 인터뷰 및 번역 작업을 진행하면서 『신의 섬』이 내포하고 있는 다수의 유의미한 문제들에도

-
- 4) 대표적인 논저로는, 도미야마 이치로(富山一郎)의 『戦場の記憶』(日本経済評論社, 1995[한국어판은 임성모 『전장의 기억』, 이산, 2002]), 『暴力の予感』(岩波書店, 2002[한국어판은 손지연·김우자·송석원 『폭력의 예감』, 그린비, 2009]), 야카비 오사무 편(屋嘉比収 編) 『友軍とガマ沖繩戦の記憶』(社会評論社, 2008), 『沖繩戦、米軍占領史を学びなおす—記憶をいかに継承するか』(世織書房, 2009), 강성현의 「‘죽음’으로의 동원과 이에 대한 저항 가능성 -오키나와 집단자결의 사례를 중심으로」(『민주주의와 인권』 6권1호, 5.18연구소, 2006) 등이 있다.
- 5) 문학 관련 논의로는, 김동윤의 「4·3소설의 전개 양상」(『탐라문화』 19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8)과 「진실 복원의 문학적 접근 방식 -현기영의 「순이 삼촌」론」(『탐라문화』 23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3), 정중현 「4·3과 제주도 코걸리티-현기영과 현기영의 4·3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현대소설연구』 58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 왕철 「소설과 역사적 상상력 -임철우와 현기영의 소설에 나타난 5·18과 4·3의 의미」(『민주주의와 인권』 2권2호, 전남대 5·18연구소, 2002) 등이 주목할 만하며, 사회·역사학 분야의 논의로는, 김창후 「4·3 진상규명운동 50년사로 보는 4·3의 진실」(『4·3과 역사』 11호, 제주4·3연구소, 2011), 권귀숙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한국사회학』 35권5호, 한국사회학회, 2001) 등이 참고가 되었다.
- 6) 비교문학 관점의 논의로는, 김동윤 「4·3소설과 오키나와전쟁소설의 대비적 고찰 -김석희와 메도루마 슌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재용 「한국에서 읽는 오키나와 문학」(이상, 『탐라문화』 49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5), 이명원 「오키나와 전후문학과 제주 4·3문학의 연대 -마타요시 에이키의 「긴네무 집」과 현기영의 「순이삼촌」의 세계성」(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편, 『재일제주인과 마이너리티』,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2014) 등이 있다.

불구하고 간행 이후 지금까지 일본 본토는 물론 오키나와 내부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해온 이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키나와 내부의 성찰적 자기서사라는 측면에서 『신의 섬』을 조망한 필자의 최근 논의는 그러한 고민을 풀어 놓은 것이다.⁷⁾

이 글에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오키나와 전투와 4·3사건을 모티브로 작품을 집필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시대의 금기를 깬 것인가를 살펴보고, 둘째 『신의 섬』과 「순이 삼촌」의 공통 모티브인 집단자결과 집단학살을 둘러싼 가해와 피해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한 파열음에 귀 기울여 본 후, 마지막으로 유사한 전개를 보였던 두 작품의 상반된 결말에 주목하여 오키나와 전투와 4·3사건을 둘러싼 기억투쟁 방식의 차이를 가능해 보고자 한다.

II. 금기(의 테마)에 대한 도전

본격적인 텍스트 분석에 앞서 두 작품 간행 무렵의 사회 안팎의 정세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선 오키나와 전투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패전국 일본군이 물러가고 승전국 미군이 진주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희생이 특히 비극적인 것은 적에게 투항하거나 포로가 되기보다 ‘집단지결’(강제사)을 강요당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는 데에 있다. 무엇보다 황국사관과 군국주의가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와 다르게 적용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 주었는데, 미일 양국 군 보다 민간인의 희생이 컸던 만큼 철저히 오키나와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했다는 것, ‘우군’이어야 할 일본군이 ‘적군’이 되고 일본군과 ‘같은’ ‘국민’인 오키나와 주민이 ‘스파이’로 내몰리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 등이 그것이다.

7) 텍스트 분석에 있어 불가피하게 논점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듯하지만, 이 글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신의 섬』과 유사한 폭력(의 기억)을 묘사하고 있는 제주 4·3문학과 대비를 통해 동아시아(적) 사유와 성찰의 지평을 보다 넓혀보고자 하였다 (손지연, 「전후 오키나와(인)의 성찰적 자기서사 『신의 섬(神島)』 : ‘오키나와 전투’를 사유하는 방식」, 『한림일본학』 27집,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2015).

한편, 『신의 섬』이 간행되는 1960년대 후반 무렵은 미일군사동맹의 재편·강화 움직임과 함께 ‘오키나와 반환 협상’이 미일 양국 사이에 활발하게 오갔으며, “핵 없는 반환” “교육권 분리 반환” 등 구체적인 반환 방법까지 논의되던 때였다.⁸⁾ 여기에 오키나와 내부의 ‘조국복귀’ 열망이 가세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오키나와 전투에 관한 논조에도 변화가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민중 체험이 아닌 미군 전사(戰史)와 방위청 전사에 기댄 전기물이 붐을 이룬 것이다. 본토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몰자 유족과 부상자를 대상으로 한 ‘원호법’(1952년 시행)을 오키나와에도 동등하게 적용하자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원호법(戰傷病者戰沒者遺族等援護法)’ 적용이 결정되자 학도대, 의용대, 소개(疏概)학생, ‘집단지결자’ 등과 관련된 이들이 너도나도 자신이 군에 얼마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었는지 증명하는 데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오키나와 전투 기록은 “군민일체의 전투협력” “조국방위의 순국정신”과 같은 전쟁 미담 일색이 되고, 일본군의 잔학행위와 민간인의 희생을 밝히는 것은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⁹⁾

『신의 섬』이 갖는 가장 큰 미덕은 이러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금기시되던 본토의 가해 책임을 밖으로 꺼낸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오시로 스스로도 이에 대한 고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일본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친밀감도 있는, 동화와 이화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복잡한 심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카테일파티’의 본토 버전이 ‘신의 섬’이라고 할 수 있죠. ‘카테일파티’와 매우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카테일파티’는 싸울 것인가, 친하게 지낼 것인가로 고민했다면, ‘신의 섬’에는 싸울 것인가가 아니라, 원망할 것인가, 친해질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싸움까지는 가지 못하죠. 본토에 대해서는 순전히 원망이죠, 원망 쪽이 크죠.¹⁰⁾

8) 岡本恵徳, 『現代文学にみる沖縄の自画像』, 高文研, 1996, p.65.

9) 石原昌家・大城将保・保阪廣志・松永勝利, 『争点・沖縄戦の記憶』, 社会評論社, 2004, pp.25-26.

10) 김재용 교수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오시로는 『신의 섬』과 관련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 소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었다(김재용, 「오시로 다쓰히로 소설가와의

미국에 대한 비판이 돋보였던 『카테일파티(カクテル・パーティー)』(1967) 때와 달리 『신의 섬』을 집필할 때는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는 작가의 솔직한 속내가 인상적이다. 작가의 작금의 심경은 차치하더라도 오키나와 전투의 비극을 상징하는 집단자결에 대한 본토의 책임을 묻는 일은 본토와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데에 몰두했던 당시로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순이 삼촌」 간행을 둘러싼 사정은 어떠했을까?

오키나와 전투와 마찬가지로 민간인의 희생이 컸던 만큼 4·3사건 역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강력한 반공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4·3 = ‘공산폭동’, 제주도 = ‘빨갱이 섬’이라는 견고한 틀 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오랜 금기를 깬 것은 1950년대 말 ‘4·3사건 진상규명동지회’ 결성과 함께 진상규명을 요구한 제주대학생들이었다. 이후 1960년 4·19혁명을 기폭제로 유족, 제주도민, 『제주신보』가 중심이 되어 양민학살 진상규명운동을 전개해 갔다. 이들이 우선 주력한 것은 레드 콤플렉스로부터의 탈피, 즉 4·3 희생자 = ‘빨갱이 폭도’라는 인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끝이 5·16군사쿠데타 발발로 진상규명의 의지는 좌절되고 4·3에 관한 기억은 다시 ‘금기’로 되돌려졌다. 그 누구도 국가에 의한 공적 역사 이외의 다른 진상이나 기억을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폐색의 시대가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 이전까지 무려 30여 년이나 지속되었다. 4·3을 소재로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거나 금서가 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사실만으로 당시의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¹¹⁾

「순이 삼촌」의 집필 의도는 이러한 시대적 금기를 타파하고 제주 내부에 자리한 뿌리 깊은 콤플렉스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내 소설의 모태는 4·3항쟁”이라는 작가의 고백을 들어보자.

대답, 『지구적 세계문학』 6호, 글누림, 2015 가을, p.146).

11) 현기영은 1979년 10·26 직후 「순이 삼촌」으로 서빙고동 보안사 지하실에 끌려가 ‘간첩’에서 비명소리가 날 정도로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순이 삼촌」에 깊은 충격을 받은 이산하는 「한라산」 1부를 『녹두서평』 창간호(1987.3.)에 발표했다. 가 긴급수배되어 87년 체포돼 구속된 바 있다(이산하, 「4·3트라우마」를 위한 기억투쟁 작가 인터뷰 현기영, 계간 『민주』 제6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3, p.225, p.236).

‘유신’이라는 엄혹한 정치현실이 나를 그렇게 각성시켰다. (중략) 4·3은 결코 발설해서는 안될 무서운 금기여서 모든 사람의 입을 얼어붙게 했고, 피해의식은 깊이 내면화되어 마치 제이천성처럼 굳어져 버렸다. 그것은 숙명적인 열광감, 자기부정 사상을 낳았고, 권력에 대한 맹목적 두려움, 중앙에 대한 맹목적인 선망을 불러일으켰다. 바로 이것이 그 선배들이 보여준 콤플렉스의 실체가 아니던가. (중략) 나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하던 증언자들의 달랠 길 없는 한과 분노가 고스란히 내 작품에 반영되기를 원했다. 작품 형상화의 과정에서 나는 소설의 주인공들이 겪는 고난이 마치 내 자신이 겪는 듯한 뜨거운 일체감을 느꼈다. 글을 쓰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여러 번이었다.¹²⁾

“‘유신’이라는 엄혹한 정치현실”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4·3이라는 금기를 깨야 한다는 각성의 계기로 작용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다. 특히 주변의 제주 출신 선배들이 보여준 열광감, 자기부정, 맹목적 두려움, 맹목적 선망 등의 콤플렉스의 실체에 다가갈수록 “잠재되었던 4·3의 기억”¹³⁾이 되살아났고, 이것이 자신의 소설의 “모태”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앞서 오시로가 본토에 대한 ‘원망’과 ‘미안함’이라는 두 개의 엇갈린 감정을 고백했다면, 현기영의 경우는 제주도민의 ‘분노’와 ‘한’을 고스란히 담아내리라는 보다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사히 넘어가지 못하리라”는 작가의 “불안감”¹⁴⁾은 그대로 적중해 혹독한 고난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를 “불행한 여인” ‘순이 삼촌’의 “분신”¹⁵⁾으로 명명하며 이후로도 4·3 관련 작품을 연이어 내놓는다. 「도령마루의 까마귀」(1979), 「해룡이야기」(1979), 「길」(1981), 「아스팔트」(1984), 「위기의 사내」(1991), 「마지막 테우리」(1994) 등은 모두 4·3을 사유하는 데에 빼놓을 수 없는 작품들이다. 특히 초기 3부작으로 알려진 「순이 삼촌」·「도령마루의 까마귀」·「해룡이야기」의 내용을 합쳐 놓은 것이 오시로의 『신의 섬』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요소들이 많아 의미 있는 비교 대상이 될 듯하다.

12) 현기영, 「내 소설의 모태는 4·3항쟁」, 『역사비평』(제주 4·3항쟁 45주년 특별기획), 역사비평사, 1993, pp.164-167.

13) 현기영, 위의 글, p.164.

14) 현기영, 위의 글, p.167.

15) 현기영, 「변신의 즐거움」, 『바다와 술잔』, 화남, 2001, p.188.

Ⅲ. ‘집단지결’을 둘러싼 공모된 침묵 : 『신의 섬』

『신의 섬』의 무대는 오키나와 본섬에서 멀리 떨어진 ‘상상(가공)’의 섬 ‘가미시마(神島)’다. 이곳은 오키나와 전투 발발과 함께 미군이 가장 처음 상륙한 이래 수비대 일개 중대 3백 여 명과 비전투원으로 조직된 방위대 7십 명, 조선인 군부 약 2천 명의 집결지가 되어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소설의 첫 장면은 ‘가미시마 국민학교’ 교사였던 다미나토 신코(田港真行)가 ‘섬 전몰자 위령제’에 초대 받아 섬을 찾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학생들을 인솔하여 섬 밖으로 소개(疏開)한 후 23년 만의 일이다. 섬에 도착하면서부터 그의 관심은 오로지 전쟁 말기 33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집단지결의 전말을 밝히는 데에 집중된다. 오키나와 전투의 비극을 간직한 가미시마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인물은 또 있다. 섬을 배경으로 한 영화제작을 위해 얼마 전 건너온 청년 요나시로 아키오(与那城昭男)다. 이 두 인물을 축으로 집단지결을 둘러싼 가해와 피해의 복잡한 구도가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소설은 크게 집단지결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의 인물과 밝히고 싶지 않은 인물이 대결구도를 이루며 집단지결이 은폐하고 있는 문제들을 가시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다미나토와 요나시로는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 외 대부분의 섬사람들은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더 미세하게 나누면 두 그룹 모두 오키나와 출신이지만 가미시마의 비극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로 나눌 수 있다. 다미나토의 경우 가미시마 출신이지만 소개로 집단지결의 직접적 피해를 피해갔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경험과 거리가 있으며, 거기다 본토 출신 여성과 결혼해 그곳에 정착한 탓에 섬사람들로부터 “반(半) 오키나와인”¹⁶⁾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미나토 자신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본토에 대한 콤플렉스도 갖고 있으며 섬 공동체로부터도 소외당하는 미묘한 위치에 자리한다. 오키나와 본섬 출신인 요나시로는 그런 다미나토의 입장까지 꿰뚫어 본다. 그 자신도 섬사람들로부터 “젊

16) 오시로 다쓰히로, 『신의 섬』, 『지구적 세계문학』 6호, 손지연 옮김, 글누림, 2015 가을, p.56(이하 『신의 섬』 인용은 필자 번역의 이 잡지에 따르며 본문에 페이지 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은 교사들에게 뭔가 바람을 넣”는 “사상적으로 이상”(p.63)한 사람으로 통한다. 여기에 본토 출신 미야구치 도모코(宮口朋子)와 기무라 요시에(木村芳枝), 그리고 민속학자 오가키 기요히코(大垣清彦)가 등장한다. 이들 역시 같은 본토 출신이지만 하나의 범주로 묶이지 않으며 섬사람, 섬의 비극을 바라보는 시선도 같지 않다.

이 장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집단자결의 ‘피해’ ‘당사자’이면서 진상을 은폐하고 침묵하는 섬사람들이다. 주요 인물로는 당시 학교장으로 있던 후텐마 젠슈(普天間全秀)와 그의 여동생이자 오키나와 전통의 상징 노로돈치(祝女殿内) 가문의 계승자인 하마가와 야에(浜川ヤエ), 후텐마 젠슈의 아들로 마을 부촌장 직을 맡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후텐마 젠이치(普天間全一), 그와 다섯 살 차이 나는 젊은 촌장, 다미나토 제자이자 ‘가미시마 국민학교’ 교사인 도카시키 야스오(渡嘉敷泰男), 그리고 그들의 부모세대가 등장한다. 이들은 집단자결의 비극을 경험했으나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집단자결의 전말을 밝히는 데 앞장 선 다미나토와 요나시로의 예리한 시선을 따라가 보자.

우선 다미나토가 집단자결과 가장 깊숙이 관련되었을 것으로 꼽고 있는 인물은 후텐마 젠슈다. 그는 일본군 미야구치 군조(軍曹)의 명을 받아 주민들에게 직접 집단자결을 설득하여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력이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자신은 하나 남은 수류탄이 불발되는 바람에 살아남았다. 그런 연유로 후텐마 젠슈는 일본군에 대한 원망, 본토의 책임만을 온전히 묻기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된다. 집단자결의 책임 소재를 집요하게 추궁하는 다미나토와 그에 대한 젠슈의 애매한 반응은 그 단면을 노정한다.

“미야구치 도모코 씨 아버지가……” 다미나토는 분명하게 다그쳤다.

“섬사람들에게는 잔혹한 역사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섬사람들에게 라고 하고, 후텐마 젠슈에게 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다미나토의 마지막 배려였는데, “다미나토 군. 분명하지 않다, 분명히 하고 싶지 않다, 고 하는 것도 훌륭한 역사적 증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나?”(p.93)

젠슈의 입을 통해 집단자결이 일본군 미야구치 군조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전해들은 다미나토는, 집단자결의 책임은 분명 미야구치 군조에게 있으며, 그가 섬 주민에게 “잔혹한 역사”를 만든 주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한다. 그러나 젠슈는 그런 식으로 그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회의적으로 반응한다. 다미나토의 눈에 비친 그의 태도는 “모든 역사적 기술을 부정하는 일”이었지만, “분명히 하고 싶지 않”은 심경 또한 헤아린다. 또한 다미나토를 환영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오고간 “일본군에게 살해당한 사람”(p.53) “동포끼리 서로 죽이는 형국” “집단자결”(p.54) 등의 의미심장한 말들도 집단자결에 이르는 과정이 단순히 가해와 피해, 자발과 강제 어느 한쪽으로 양자택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작용했으리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데, 특히 후텐마 젠슈와 같이 학교장직을 맡고 있거나 촌장, 구장, 조합장, 순사 등 마을의 지도층 위치에 있었던 이들이 군의 명을 받아 집단자결을 주도하고, 가족과 친지, 이웃들이 서로가 서로를 살해하는 형태로 실행에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¹⁷⁾

그의 여동생 하마가와 야에 또한 집단자결의 현장에 자리했던 인물이다. 전쟁이 한참이던 때 ‘노로(祝女)’에게만 허락된 ‘배소(拜所)’에 가족들을 데리고 피신해 들어가게 되고, 이후 마을사람들과 군인까지 합세하면서 신성해야 할 배소는 처참한 집단자결의 장(場)이 된다. 이곳을 전쟁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는 것은 야에 또한 집단자결에 관한 기억을 철저히 침묵해 왔음을 의미한다. 야에의 경우, ‘노로’로서 금기를 어겼다는 것, 일본군을 배소에 들여 놓음으로써 신성함을 해했다는 죄책감만 피력되고 있지만, 그곳에 쌓여 있던 수많은 유골로 미루어보아 그녀 역시 집단자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암묵적 목인 내지는 목격자가 되었을 가능성은 농후해 보인다.

17) 강성현의 논의에 따르면, 이들은 군과 일체화된 지도층으로, 평시에는 생활개선운동을 통해 오키나와인의 황민화 및 본토 동화를 주도했으며, 전시에는 전시동원체제에 적극 협력하며 생활개선운동의 규율을 군율로 확대하는데 일조했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는 오키나와 전투에 동원되어 ‘스파이’로 지목되어 무참히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 군에서 이탈한 자도 있었으며, 살아남은 경우 미군에 투항하여 협력하기도 하고 더러는 일본군에 대한 저항세력을 조직하기도 했다고 한다(강성현, 「‘죽음’으로의 동원과 이에 대한 저항 가능성 - 오키나와 ‘집단자결’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6권1호, 5·18연구소, 2006, p.178).

그렇다면 젊은 세대의 경우는 집단자결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촌장과 부촌장의 인식은 그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가미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제작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요나 시로는 “장밋빛 관광시설의 꿈과 전쟁의 상흔”(p.67)도 표현할 것이라는 계획을 피력한다. 이에 부촌장은 “마을사람들의 의향”(p.67)을 대변하여 “어두운 이야깃거리”(p.67)는 넣지 않는 편이 좋을 거라고 말한다. 이어서 촌장도 “마을 당국과 마을 지도자층의 의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쟁의 비극”을 부각시킴으로써 “눈앞의 현실이나 발전에 방해가 되어선 안 된다”(p.68)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여기서 촌장과 부촌장이 예들려 표현하고 있는 “어두운 이야깃거리” “전쟁의 비극” 등은 모두 집단자결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섬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집단자결이 외부로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촌장과 부촌장의 태도는, 1960년대 오키나와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소설 곳곳에 빈곤 탈피와 경제 부흥을 위해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묘사되고 있다. 이를테면 “본섬처럼 기지 덕분에 농경지를 갈아엎는 일 없이 오히려 기지 부대에 적은 양이긴 하지만 채소를 파는 이른바 ‘기지수입’”(p.50)을 올리거나, 사탕수수 재배, 가쓰오부시 생산 등 마을 경제를 살릴만한 방안을 여러 방면에서 모색 중이다. 거기에 앞장 선 이는 수완 좋은 부촌장 후텐마 젠이치로, “개발 금융공사와 절충”을 통해 “근대적인 가다랑어 배”를 장만하는 등 “훌륭한 자본가”(p.51)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무엇보다 촌장과 부촌장 모두 부모세대와 달리 어두운 그들이 없고 낙천적이다. 그 차이는 아마도 집단자결의 기억을 부모세대만큼 생생하고 아프게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부촌장과 상당히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또 한 명의 인물은 25년 전 다미나토와 함께 소개한 학생이자, 지금은 ‘가미시마 국민학교’ 교사로 있는 도카시키 야스오다. 다미나토에게 그는 소개지에서 땅에 떨어진 흰쌀밥 = ‘긴메시(銀メシ)’로 만든 주먹밥을 허겁지겁 주워 먹던 가난에 찌든 어린아이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하마가와 야에의 생활 속엔 아직 남아있는” “가난함”이 젊은 도카시키 야스오에게는 더 이상 없음을 깨닫고 “이상한 기분”(p.48)에

휩싸인다. 일본군에게 남편을 잃고 외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잃게 된 하마가와 야에의 처지를 “우연한 사고”가 겹친 것뿐이라고 가볍게 넘겨 버린다거나, 남편의 유골을 애타게 헤매는 것을 “불발탄” 줍기와 같이 “전문적인 일을 즐기고 있는”(p.47) 것으로 이해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목에 먼도칼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아버지는 상처가 없는데 말이죠.”(p.49)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것에서 집단자결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학교 교육은 물론 부모조차 집단자결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후세대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젠이치의 경우 집단자결을 피해 아버지 젠슈와 함께 살아남았지만 그에 관한 기억은 남아있지 않은 듯 보인다. 그러한 기억의 차이, 경험의 차이는 집단자결에 대한 인식과 그대로 연결되는데, 후텐마 젠슈로 대표되는 기성세대가 다분히 의식적으로 침묵했다면, 젊은 세대의 경우는 몰이해로 인한 무의식적 침묵과 현실적인 이유가 반영된 의식적 침묵이 혼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처럼 집단자결을 둘러싼 세대를 넘어선 암묵적 합의의 침묵을 필자는 ‘공모된 침묵’이라 규정하고자 한다. 이 ‘공모된 침묵’이 깨지는 순간 전쟁 이후 비극의 섬 가미시마를 위태롭게 지탱해 온 ‘평화’마저 깨지리라는 것을 섬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미나토 식으로 말하면 “익숙해지는 것이지, 정신적 평화를 얻은 것과는 다르”(p.48)며, 요나시로 식으로 말하면 “껍데기 속 평화”(p.7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잔혹한 것이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믿지 않네. 이 섬은 어디까지나 평화로운 관광의 섬으로 만들어 갈 것이니, 그런 전쟁 당시의 잔혹한 기억은 서로에게 증오만 불러일으킬 뿐 그래선 안 된다고 보네.”(p.68)

“섬은 일반적으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평화롭다는 뜻이죠? 그러나 껍데기 속 평화예요. 껍데기에 숨어 있다는 점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겠죠. (후략)”(p.71)

춘장과 요나시로가 영화 소재로 하마가와 야에의 유골수습 장면을 넣을

것인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다. 집단자결과 관련된 내용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으나 넣게 되더라도 “잔혹한 기억”을 배제하고 “평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만 취사선택하자는 것이 촌장의 주장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오키나와 전투 기록이 일본군의 잔학행위와 민간인의 희생을 대신해 순국 정신과 전쟁 미담으로 채워간 동시대의 사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요나시로는 섬사람들이 “서로에게 증오만 불러일으킬”만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토와 보다 적극적으로 공모해 간 정황도 포착한다. 이를테면 ‘조국복귀’를 앞두고 강화된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 모호한 용서와 형식적인 애도로 치러지는 위령제, 전쟁책임에 무자각한 본토인을 비판하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그것이다.

섬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죽은 자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 뉘저 모를 용서와 형식적으로 애도하는데 그것으로 좋은 걸까?(p.99)

(오카키가 말하는-인용자) 군대 가서 개죽음 당하기 싫었다는 멋진 말 속에는 전쟁의 상처는 하나도 없어 보였다. 그리고 이 섬에서 군인들이 범한 죄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얼굴을 한다. 그 나라라는 건 어디일까? 그의 조국 일본일 리 없다. 그 군인들과 조국을 공유할 리 없는 것이다. 그가 사랑한다고 하는 오키나와인 걸까? 이 섬의 망령들의 일을, 남의 얘기처럼 말하지만, 하마가와 미망인의 비극을 마가타마(勾玉)라는 이미지를 통해 민속학적인 미의식 속에 해소시켜 버리는 심정은 과연 오키나와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p.84)

무엇보다 가미시마의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는 집단자결이라는 막대한 희생을 치른 섬사람들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전쟁의 ‘희생자’로 아우르는 것으로 전쟁책임에 면죄부를 부여 받은 본토인들의 ‘공모된 침묵’ 없이는 불가능했으리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¹⁸⁾ 소설은 미야구치 군조의

18) 실제로 일본정부는 유족연금 획득을 위한 원호법적용운동에 호응하여 영역(靈域)정비, 야스쿠니 참배, 전몰자 표창 등을 실시하고, 1960년대 후반부터 오키나와반환운동의 일환으로 ‘본토일체화정책(本土一體化政策)’을 추진하는 등 오키나와를 본토에 흡수하기 위해 오키나와 전투를 적극 이용해 간다(石原昌家·大城將保·保阪廣志·松

딸 도모코가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해 속죄하는 의미로 하마가와 야에의 유골 줍기를 돕다 불발탄에 맞아 사고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신의 섬』이 담고 있는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난해하고 무거운 주제임에도 작가 오시로의 의도는 매우 명확하게 읽혀진다. 그것은 집단자결로 상징되는 오키나와 전투의 비극을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항대립으로 나누지 않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후텐마 젠슈를 집단자결에 일조한 인물로 묘사하고, 가해 주체인 미야구치 군조와 그의 딸 도모코가 나가사키(長崎) 출신이라는 설정을 통해 본토의 원폭 피해를 환기시켰던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나가사키 원폭에 대한 언급은 단순히 본토 역시 전쟁의 피해자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가해의 주체는 분명히 일본(군)이라는 것, 아울러 그들로 하여금 오키나와(인)의 입장, 즉 ‘피해’ ‘당사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¹⁹⁾ 이처럼 전후 뒤섞여 버린 가해와 피해의 역설적 구도와 균열에 주목한 예리한 통찰력은 시대를 앞선 오시로 특유의 사유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집단학살’을 둘러싼 파열음 : 「순이 삼촌」

한편 「순이 삼촌」의 배경은 4·3사건이 있은 후 30여 년이 흐른 제주 ‘북촌 너븐숭이’이다. 4·3 유적지 가운데 모슬포 대정의 ‘백조일손지묘(百祖一孫之墓)’와 함께 널리 알려진 이곳은 무고한 제주도민 4백여 명이 처참하게 살해된 집단학살의 장소이기도 하다. 소설은 서울에서 자리 잡은 ‘나’=상수가

永勝利, 앞의 책, pp.26-27).

19) 이를테면 섬의 비극에 유일하게 공감을 표하는 본토(나가사키) 출신 도모코에게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요나시로의 다음과 같은 독백이 그러하다. “섬의 비극을 원폭의 비극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까진 좋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 버렸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부채를 갖고 있다- 라는 데에 착목한 것도 좋다. 역시 원폭의 땅에서 자란 사람만의, 생활에서 얻은 것이리라. 그러나 죽은 자가 책임져야 할 부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하나. (중략) 섬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죽은 자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 뭇지 모를 용서와 형식적으로 애도하는데 그것으로 좋은 걸까?”(p.99)

할아버지 제사와 가족묘지 매입 문제 등으로 8년 만에 제주도로 귀향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나’에게 고향은 깊은 우울증과 찌든 가난밖에 물려받은 것이 없는, 30년 전 군 소개작전으로 소각된 찻더미 모습 그대로 예나 지금이나 ‘죽은 마을’로 기억되는 곳이다. 모처럼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담소를 나누던 중 ‘나’는 순이 삼촌이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다. 순이 삼촌은 촌수는 멀어도 큰집과는 이웃에 살면서 서로 기제사에 왕래할 정도로 각별하게 지내온 사이였다. 더구나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올라와 ‘나’의 집안 살림을 도맡아 주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순이 삼촌의 자살을 계기로 ‘나’는 애써 묻어 두었던 4·3의 기억을 하나 둘씩 떠올리게 된다. 토벌군에게 끌려가 집단학살 직전까지 내몰렸다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고 홀로 살아남은 순이 삼촌의 기구한 삶이 화제에 오르자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의 논리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한다. 의견은 크게 4·3의 진상을 이제라도 규명해야 한다는 ‘나’와 길수 형, 반대로 공연히 들춰내 굶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큰아버지와 큰당숙, 작은당숙, 고모부, 그리고 가끔씩 끼어들어 말을 거드는 현모 형으로 나뉜다. 언뜻 보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로 의견이 양분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는 균열들이 존재한다. 특히 고모부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띤 인물로, 사태 당시 양민 학살에 앞장섰던 서북청년단(서청)에 가담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모인 섬 출신 여성과 결혼한 인연으로 이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 고모부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 가해와 피해, 억압과 저항이라는 구도는 매우 복잡한 형태로 작동한다. 이를테면 산사람(무장대/폭도)/토벌대(군인, 순경, 서청), 육지 것/섬사람이라는 커다란 갈등의 축은 다시 일정 부분 양민 편에 선 섬 출신 토벌군과 육지 출신의 극악한 토벌군으로 나뉘며, 고모부와 같이 서청 출신이면서 섬과의 인연이 깊은 토벌군은 또 다른 위치에 자리할 것이다. 섬사람도 민간인(양민)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기 어렵다. 이들 사이에도 권력에 영합해 토벌군 편에 선 섬사람(「해룡 이야기」의 ‘구름보’의 경우 해방 전에는 일제에 영합한 인물로 묘사됨)과 무고한 섬사람(특히 여성, 노인, 아이들) 등으로 미세하게 나뉜다.

『신의 섬』에서 집단자결의 전말을 밝히는 데 앞장섰던 다미나토 신코와

요나시로 아키오의 역할은 「순이 삼촌」에서는 「나」와 길수 형이 맡고 있고, 사태를 침묵으로 일관해 온 후텐마 젠슈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의 입장은 큰아버지, 큰당숙, 작은당숙, 고모부가 대변하고 있다. 또한 하마가와 야에는 순이 삼촌, 야에의 본토 며느리는 순이 삼촌의 서울 조카며느리로 바뀌어 읽어도 될 만큼 등장인물의 면면이 유사하게 조형되고 있다.

순이 삼촌의 자살을 계기로 불거진 4·3의 기억, 집단학살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신의 섬』만큼이나 복잡할 것으로 보이지만, 각기 다른 입장을 반영할 만한 인물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들여다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출하고 있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하여간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다. 아명해도 밝혀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라도 꼭 밝혀두어야 합니다. 그 학살이 상부의 작전명령이었는지 그 중대장의 독자적 행동이었는지 그 누구의 잘못이었는지 하여간 밝혀내야 합니다. 우린 그 중대장 이름도 모르는 형편 아니우파?”

이 말에 큰당숙어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거 무신 쓸데없는 소리고! 이름은 알아 무싱거(무엇)히젠? 다 시국 탓이엔 생각하고 말지 공연시리 굶어 부스럼 맹글 거 없져.”

고모부도 맞장구쳤다.²⁰⁾

길수 형과 큰당숙, 고모부 간의 대화 장면이다. 화자인 「나」를 포함한 길수 형은 이제라도 집단학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큰당숙, 고모부 등 기성세대는 공연히 굶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묻어두자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의 차이는 아마도 연령에 따라 그 충격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이리라. 예컨대 「나」와 길수 형은 당시 열 살이 채 안 된 나이였으므로 사태를 직접 경험했다고는 하나 기성세대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진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철모르는 아이들”에게 “양과자”를 쥐어주면 “대밭에서, 마루 밑

20) 현기영, 「순이 삼촌」, 『현기영 중단편전집1 순이 삼촌』, 창비, 2015, p.78(이하 「순이 삼촌」 인용은 본문에 페이지 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에서, 외양간 밑이나 조짚가리 밑을 판 굴에서 여러번 제 아버지와 형을 가리켜냈다”(p.79)고 하는 표현에서 그러한 정황을 짐작케 한다. 물론 아이들이 느꼈을 공포감이나 심리적 트라우마도 상당했겠지만, 기성세대의 경우는 그것에 더하여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국가권력의 실체가 얼마나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것인지 가장 처절하게 경험한 직접적 피해 당사자라는 차이가 있다. 큰당숙이 섣뽕 진상규명에 다가서지 못하는 것은 그런 경험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일종의 4·3 후유증이자 레드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고모부는 큰당숙의 의견에 맞장구치며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있으나 그 배경은 전혀 다르다. 평안도 용강 출신인 그는 서청에 가담하여 입도했으나 ‘나’의 할아버지가 피로 어르는 바람에 얼떨결에 섬 출신 여성인 고모와 결혼하게 된다. 당시 도피자 가족들 중에는 “목숨을 부지해보려는 방편”으로 이 같은 “정략결혼”(p.80)이 성행했다고 한다. 지금은 제주사투리를 구사하며 30년간 이 고장 사람이 되어 살아오고 있다. 그런 탓에 고모부는 스스로의 위치를 어느 한쪽에 자리매김하지 못한다.

“기세, 조개, 지나간 길 개지구 자꾸 들춰내선 멀하간? 전쟁이란 다 기런 거이 아니가서?

순간 오십줄 나이의 고모부 얼굴에서 삼십년 전의 새파란 서북청년의 모습을 힐끗 엿본 느낌이 들었다. 가슴이 섬뜩했다.(p.78)

“성님, 서청이 잘했다는 말이 절대 아니우다. 서청도 참말 옥먹을 건 먹어야 합쥬. 그런데 이 섬 사람을 나쁘게 본 건 서청만이 아니라수다. 육지 사람치고 그 당시 그런 생각 안 가진 사람이 없어서 마썸. 그렇지 않아도 육지 사람들이 이 섬 사람이랜 허민 얹이 보는 편견이 있는디다가 이런 오해가 생겨부러시니……내에 참.”(pp.81-82)

위의 인용문에 보이는 것처럼 고모부는 나름의 논리를 들어 서청의 입장을 항변하기도 하고 섬사람들에게 옥먹을 짓을 한 점은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도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이며 나아가 전쟁 상황이 빚어낸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책임의 본질을 회피해 버린다.²¹⁾ 그러나

그는 “4·3폭동”(p.81)이라는 용어에 익숙한, 내면 깊숙이 ‘4·3 = 폭동’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고모부와 같이 서청 출신이면서 섬과의 인연이 깊은 토벌군이 있듯, 섬사람 사이에도 ‘육지 것’과 ‘섬사람’이라는 이항대립을 비껴가는 이들이 다수 존재한다. 위의 고모부 발언처럼 섬을 초토화시키고 집단학살로 몰아넣은 주체는 ‘육지 사람들’ 혹은 ‘육지 것들’이 그들이다. 그런데 작은당숙은 이에 반론을 제기한다. 고모부의 말을 이어받아 큰당숙이 “원 섬이 육지것들 독판”이었다고 회고하며, “도피자를 총살 말렌 당부했”는 데도 “육지것들”이 이를 무시하고 총살을 했다는 본도 출신 함덕지서 박 주임 이야기를 꺼내자, 작은당숙은 “박 주임이 참말 그런 말을 해서까 마썸? 아매도 죄 없는 사람 죽인 책임을 조금이라도 벗어보젠 변명허는 걸 거우다.”(p.82)라며 일축한다. 옆에 있던 현모 형도 “난 들으니까 박 주임 그 사람이 서청보다 되리어 더 악독하게 놀았던 험디다.”(p.82)라며 작은당숙의 말을 거든다. 현모 형은 당시 해병대 소속으로 초토작전에 가담하지 않고 도피자들 편에서 활약한 인물이다. 해병대라면 한때 군경 측에서 서서 섬사람을 좌익으로 몰아 “때려잡던 단세포적인 사고방식”(p.83)을 보이기도 했지만 현모 형이 속한 3기들은 초창기 해병대와 달랐다. 또 6·25 때는 인천상륙작전에서 용맹을 떨치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현모 형을 비롯한 섬 출신 청년들이 너도나도 입대를 자원한 것은 “빨갱이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p.83)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당시 본도 출신 순경 중에 서청에게 ‘빨갱이’로 오인 받지 않기 위해 한술 더 떠 과격한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 그와 정반대로 박주임이 잡혀온 도피자 여러 명을 몰래 놓아 주었다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사태 이후 박 주임이 “치도곤을 당한 일”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과격한 행동”(pp.82-83)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 듯 보인다. 중요한 것은 ‘육지 것’에 포섭되어 학살에 가담한 박 주임의 행태나, 섬사람 편에 섰던 해병대 출신 현모 형의 용맹스러운 행동이나 모두 “빨갱이란 누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한 “반대급부적인

21) 실제로 제주도민이 증언하는 서청은 잔인한 “사람백정”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서청 출신은 자신들도 국가(이승만 정권)와 지역 정치가들에 의해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한다(권귀숙,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 35권5호, 한국사회학회, 2001, p.212).

행위”(p.83)의 결과라는 점이다. ‘나’는 현모 형으로 대표되는 해병대의 “용맹”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이북 사람에게 당한 것을 이북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식”의 해병대의 행태가 또 다른 “보복”(p.83)을 초래한 점도 꿰뚫고 있다.

논쟁이 점점 무르익어 가면서 ‘나’는 “진짜 빨갱이”(p.84)를 구분하는 것, 즉 무장공비, 비무장공비, 폭도의 구분이 얼마나 모호하고 자의적인 것인지를 폭로한다. 특히 비무장공비라 명명되던 이들이 실은 “중간산 부락 소각으로 갈 곳을 잃어 한라산 여기저기 동굴에 숨어 살던 피난민”(p.84)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바로 이 “폭도도 무섭고 군경도 무서워서 산으로 피난 간 양민들”과 “군경 전사자 몇백과 무장공비 몇백을 빼고도 삼만명에 이르는 그 막대한 주검”(p.85)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 ‘나’와 길수 형의 주장인 것이다. 이때 ‘양민’이라는 범주 또한 하나로 묶기 어렵다. 개중에는 토벌군에 편승하여 이웃을 폭도로 몰아가는데 일조한 이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순이 삼촌」에서 미처 조정하지 못한 이 같은 인물유형은 후속 작품인 「해룡 이야기」의 ‘구름보’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는 해방 전에는 “일본놈 끄나풀”²²⁾이었고, 해방 후 “토벌군의 정보원”²³⁾이 되어 다시 나타나는데, 폭도나 토벌대에 속하지 않는 ‘양민’ 가운데에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웃을 해하는 “악독한 것”(p.82)이 섞여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렇듯 4·3의 기억, 다시 말해 집단학살을 실행에 옮긴 가해의 사례와 집단학살로 내몰린 피해의 사례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가해와 피해, 억압과 저항이라는 이항대립 구도만으로 명쾌하게 구분하기 어렵게 한다.²⁴⁾

현기영의 4·3소설이 갖는 무게감은 바로 이 고모부를 비롯한 박 주임이나 구름보와 같은 당시로서는 간과하기 어려운 인물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조형해 내었다는 데에 있다. 1980년대 무렵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증언, 회고담

22) 현기영, 「해룡 이야기」, 『현기영 중단편집집1 순이 삼촌』, 창비, 2015, p.151.

23) 현기영, 위의 책, p.152.

24) 이러한 곤란함은 1990년대 4·3 관련 위령의례가 재현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때의 문제의 핵심은 4·3을 어떻게 기억하고 정의할 것인가, 즉 항쟁이나, 폭동이나, 양민학살이나 등의 기억투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4·3위령의례들은 ‘양민학살’ 쪽에 무게를 두었다고 한다(강창일·현혜경, 「기억투쟁과 4·3위령의례, 나간채·정근식·강창일 외 공저,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p.94).

등의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한 권귀숙의 논의는 이를 뒷받침한다. 예컨대 4·3에 대한 기억을 증언하는 목소리는 경찰, 군인, 산사람, 좌익단체원, 우익단체원, 민보단원, 일반주민 등으로 다층적으로 나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일은 상당히 모호하여 “모두 피해자로서 사회적 기억을 형성하고 있는 증인 뿐”²⁵⁾임을 지적하였는데, 적어도 「순이 삼촌」 속 인물들은 이러한 단선적 인식에 머물고 있지 않다. 「순이 삼촌」의 의미는 바로 이 4·3의 기억이 결코 하나가 아님을 여러 파열음을 통해 환기시키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이 피해자의 기억이든 가해자의 기억이든 그 어느 편에도 속하기 어려운 경계의 기억이든 “국가가 주도하여 전파시킨 관계기억”²⁶⁾을 해체하고 이를 다시 개개인의 개별적 기억으로 되돌려 주었다는 점에서 말이다.

V. 기억투쟁의 향방

『신의 섬』과 「순이 삼촌」은 집단자결과 집단학살이라는 금기의 기억에 주목하고 이를 폭로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이 비극적 사태를 어떻게 기억하고 정의할 것인가, 가해와 피해, 억압과 저항, 자발과 강제 그 어느 한쪽으로 양자택일할 수 없는 정황들을 공들여 묘사하고 있는 점에서 꼭 닮아 있다. 그런데 기억투쟁의 향방(비전)을 제시하는 방식은 상당히 달라 보인다. 두 소설의 클라이맥스와 결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곧 오키나와 전투를 둘러싼 오시로의 기억투쟁 방식과 4·3을 둘러싼 현 기영의 기억투쟁 방식의 차이이기도 할 것이다.

『신의 섬』의 결말은 위령제 당일 날 하마가와 아예가 그토록 염원하던 남편의 유골을 찾게 되고, 구 일본군의 딸 도모코는 불발탄 사고로 죽음을 맞게 되며, 며느리 요시에는 위령제를 끝으로 본토로 떠나가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순이 삼촌」의 경우 피해 당사자인 순이 삼촌의 자살이라는 사태가 소설의 클라이맥스이자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음의 방식이 자살과 사고사라는

25) 권귀숙,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35, 한국사회학회, 2001, p.225.

26) 김영범,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 -기억투쟁으로서의 4·3 문화운동 서설」, 『민주주의와 인권』3권2호, 전남대 5·18연구소, 2003, p.73.

차이도 있지만, 죽음을 맞게 된 당사자가 (아버지를 대신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차이도 커 보인다.

그렇다면 작가 오시로는 왜 도모코의 죽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일까? 그것도 윤리의식이 부재한 요시에가 아닌 도모코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도모코는 구 일본군 아버지를 대신해 본토의 책임을 대변해온 유일한 인물이다. 그와 반대로 요시에는 본토 출신인 이상 자신도 전쟁의 가해자일 수 있다는 윤리의식이 부재하거나 무감각한 인물로 그려진다. 이에 대한 답은 도모코의 사고사를 전해들은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반응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우선 도모코에게 아버지의 일을 알린 것을 후회하는 요나시로 아키오, 그리고 “27도선의 업”이라며 곧 체념하는 후네타 켄슈, 그런 그에게서 전후 역사에 대한 인식의 부재라는 결정적인 한계를 감지하는 다미나토 신코. 도모코에게 주의를 주지 못한 자책감을 느끼지만 그보다 남편의 유골을 찾았다는 기쁨이 앞서는 하마가와 야에. 요시에가 젊어져야 할 짐을 도모코가 진 것이라며 요시에를 비난하는 섬사람들과 오로지 도모코만 동정하고 야에를 격렬히 비난하는 위령제 참석자 본토인 등으로 나뉜다.²⁷⁾

도모코의 죽음은 이 같은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최적의 설정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아울러 『신의 섬』 집필 시점이 복귀를 바로 눈앞에 둔 시점이라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본토 출신 여성 가운데 어느 한쪽, 즉 며느리 요시에와의 관계(가능성)를 열어둔 것은 이를 암시한다. 소설 마지막 장면에서 위령제를 마치고 섬을 떠나는 요시에의 모습을 포착하며 그녀가 언젠가 다시 “이 섬에 귀향해 올 수도 있는 걸까?”(p.137)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 것에서 곧 다가올 본토 복귀에 담긴 작가 오시로의 기대감을 읽을 수 있다.

한편, 순이 삼촌은 마을에서 도둑으로 몰리면서도 (군인이나 순경에 대한 극도의 기피증으로 인해) 파출소 가기를 거부해 누명을 쓰기도 하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절에 머물기도 하지만 결국 4·3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

27) 이러한 다양한 반응은 ‘집단지결’이라는 사태가 갖는 복잡성 내지는 ‘가해’와 ‘피해’ 구도의 중층성을 대변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좋고 「전후 오키나와(인)의 성찰적 자기서사 『신의 섬』」 4장에서 다루었다(손지연, 앞의 논문, pp.223-229 참조).

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현기영은 순이 삼촌이 끝까지 극복하지 못한 지독한 “결벽증”과 “자격지심”은 모두 “1949년에 있었던 마을 소각 때 깊은 정신적 상처”(p.58) 때문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요컨대 “소개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중간산 부락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고발이 「순이 삼촌」의 원형이자 4·3에 천착해온 현기영 문학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순이 삼촌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 집단학살에 대한 기억을 가장 압축적으로 간직한, 말하자면 4·3의 피해를 가장 비극적인 형태로 재현하고 있는 셈이다. 그와 동시에 작가는 그러한 기억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욕망도 숨기지 않는다. 지독한 자격지심과 집착, 대인기피, 신경쇠약, 결벽증, 강박관념 등을 분신처럼 껴안고 살아온 순이 삼촌에게서 ‘나’는 “완강한 패각의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꼼짝도 않”는 “중요와 같이 이글이글 타는 강렬한 감정”의 “오해”(p.56)가 그림자처럼 함께 하고 있음을 읽어낸다. 나아가 순이 삼촌을 향해 “왜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자격지심이 생겼을까? 당신의 결벽증은 정말 지독한 것이었다.”(p.56)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표출하기도 한다. 순이 삼촌을 향한 ‘나’의 질책이 묻어나는 물음들은 곧 오랜 세월 육지 콤플렉스, 레드 콤플렉스에 시달려온 작가 자신을 포함한 고향 사람들에게 되묻는 물음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작가의 답은 순이 삼촌의 ‘자살’이라는 결말이 대신하는 것은 아닐까? 앞서 언급한 작가 자신을 포함한 제주 출신들이 갖는 열패감, 자기부정, 맹목적 두려움, 맹목적 선망 등으로 점철된 뿌리 깊은 콤플렉스로부터의 ‘결별’을 의미하는 ‘자살’ 말이다.

결과적으로 구 일본군 아버지를 대신한 도모코의 죽음은, 본토의 가해책임을 폭로하는 동시에 오키나와 내부의 성찰을 촉구하는 양방향의 열린 결말로 이끌었고, 피해 당사자인 순이 삼촌의 자살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양민의 희생(비극)을 극대화시킴으로써 4·3=‘공산폭동’, 제주도=‘빨갱이 섬’이라는 견고한 틀을 (재)확인하는 닫힌 결말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28) 정중현, 「4·3과 제주도 로컬리티-현길연과 현기영의 4·3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58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 p.53.

VI.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두 소설은 유사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결정적인 차이도 보였다. 가장 큰 차이는 결론 부분에 드러나듯 기억투쟁의 방향성이었다. 현기영이 반공이데올로기에 포섭된 무차별적인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극심한 패배주의와 열패감(레드 콤플렉스)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제시해 간 반면, 오시로는 곧 다가올 ‘조국복귀’를 의식한 듯 본토의 가해책임과 오키나와 내부의 성찰을 동시에 촉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²⁹⁾ 이후의 작품에도 차이가 보이는데 현기영의 경우 국가폭력 사태에 분노하고 고발하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용서와 화해라는 예정된 수순을 밟아간 반면,³⁰⁾ 오시로는 본토에 반응하는 형태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보인다.³¹⁾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키나와 전투와 4·3의 상흔을 드러내기 위한 두 작가의 기억투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해군기지 건

29) 이러한 경향은 두 작가의 차세대 작가라 할 수 있는 메도루마 슌(「물방울」등)과 김석희(「땅울림」등)의 작품세계와 비교했을 때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김동윤의 최근의 논의는 그에 대한 흥미로운 단초를 제공한다. 즉 메도루마 슌과 김석희의 소설의 차이는, 메도루마의 경우 “상흔의 양상과 현실적 의미에 더 주목”한 반면, 김석희는 “금기 깨기를 통한 진상규명에 비중”을 둔 데에서 찾았다(김동윤, 「4.3소설과 오키나전쟁소설의 대비적 고찰」, 앞의 논문, p.118).

30) 왕철은 현기영 문학이 고발문학에 속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보복보다는 “땃땃한 증오”를, 증오보다는 “용서”를 지향하는 문학이라고 규정한다(왕철, 앞의 논문, pp.203-206). 그의 지적대로 요컨대 「아스팔트」(1984)가 가해자의 뉘우침을 강조했다면, 「길」(1981)에서는 피해자 가족의 적대심리가 용서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으며, 「목마른 신들」(1992)의 모티브 ‘4·3 원혼굿’을 통해 ‘진혼’의 의미도 엿볼 수 있을 듯하다.

31) 복귀가 임박한 1970년 12월에 발표한 「문화창조력의 회복」에서 오시로는 “진정한 ‘복귀’란 문화창조력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언뜻 두 개의 얼굴을 갖는 오키나와 주체성의, 혈액은 역시 하나”(大城立裕, 「文化創造力の回復」, 『新沖繩文學』 18号, 1970 ; 大城立裕, 『沖繩, 晴れた日に』, 家の光協會, 1977, p.43)임을 강조하며, 본토와 구별되는, 더 나아가 본토를 넘어설 수 있는 오키나와만의 문화창조와 공동체 구축을 제안한다. 이러한 주의주장은 오키나와 전통문화·방언을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져 「니라이카나이의 거리(ニライカナイの街)」(1969), 「파나리누스 마 환상(ばなりぬすま幻想)」(1969) 등의 작품을 통해 발현되고 있다.

설은 자연학살³²⁾이라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에 앞장 선 현기영과 “후텐마(普天間)기지 철거”와 “헤노코(辺野古) 이전 단념³³⁾”을 촉구하며 기지문제 전면에서 나선 오시로의 행보는 지난 폭력의 기억을 잊지 않고, 언제 다시 위협해 올지 모르는 폭력의 징후들과도 맞서 싸우고 있는 점에서 정확히 겹쳐진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오키나와 문학과 4·3문학이 냉전하 동아시아의 저항 가능성과 평화적 연대를 상상하고 실천케 하는 중요한 마중물이라는 것을 현재진행형인 두 섬의 기지반대운동과 관련해 사유하는 일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성현, 「‘죽음’으로의 동원과 이에 대한 저항 가능성 -오키나와 ‘집단지결’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6권1호, 2006.
- 강창일·현해경, 「기억투쟁과 4·3위령의례」, 나간채·정근식·강창일 외 공저,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2004.
- 권귀숙,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 35, 2001.
- 김동윤, 「4.3소설과 오키나와전쟁소설의 대비적 고찰 -김석희와 메도루마 슌의 경우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49집, 2015.
- 김재용, 「오시로 다쓰히로 소설가와의 대담」, 『지구적 세계문학』 6호, 2015 가을.
- 김영범,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 -기억투쟁으로서의 4·3 문화운동 서설」, 『민주주의와 인권』 3권2호, 2003.

32) ‘강정마을을 사랑하는 육지 사는 제주사람’ 대표 현기영, 「해군기지 건설은 자연학살이 예요」, 『씨네 21』(2011.12.8.) ;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68313[검색일: 2015.11.10.]

33) 지난 2013년 4월, 아베 총리가 1952년을 기념하여 ‘주권회복의 날’을 개최한 것은 철저히 오키나와를 배제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하고, 후텐마 기지 철거, 헤노코 이전 단념을 촉구하며 미국과 일본 본토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大城立裕, 「生きなおす沖縄」, 『世界 沖縄 何が起きているのか』臨時増刊号869, 2015, pp.14-20).

- 손지연, 「전후 오키나와(인)의 성찰적 자기서사 『신의 섬(神島)』 : ‘오키나와 전투’를 사유하는 방식」, 『한림일본학』 27집,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2015.
- 오시로 다쓰히로, 『신의 섬』, 『지구적 세계문학』 6호, 손지연 옮김, 글누림, 2015.
- 이산하, 「‘4·3트라우마’를 위한 기억투쟁 작가 인터뷰 현기영」, 계간 『민주』 제6호, 2013.
- 정중현, 「4·3과 제주도 로컬리티 -현길언과 현기영의 4·3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8집, 2015.
- 현기영, 「순이 삼촌」, 『현기영 중단편전집1 순이 삼촌』, 창비, 2015.
- _____, 「해룡 이야기」, 『현기영 중단편전집1 순이 삼촌』, 창비, 2015.
- _____, 「내 소설의 모태는 4·3항쟁」, 『역사비평』(제주 4·3항쟁 45주년 특별기획), 1993.
- _____, 「변신의 즐거움」, 『바다와 술잔』, 화남, 2001.
- 石原昌家・大城将保・保阪廣志・松永勝利, 『争点・沖縄戦の記憶』, 社会評論社, 2004.
- 大城立裕, 「文化創造力の回復」, 『新沖縄文學』18号, 1970 ; 大城立裕, 『沖縄, 晴れた日に』, 1977.
- _____, 「生きなおす沖縄」, 『世界 沖縄 何が起きているのか』臨時増刊号869, 2015.
- 岡本恵徳, 『現代文学にみる沖縄の自画像』, 高文研, 1996.

❖ ABSTRACT

The Memory Struggle Surrounding Battle of Okinawa and 4.3
Jeju Massacre
- Based on Island of the Gods Island of Oshiro Tatsuhiro and
Soon's Uncle of Hyun, Ki Young

Son, ji-youn

This study started from an interest in the unique history and literature of Okinawa and Jeju Islands. The Battle of Okinawa at a late stage of the Asia-Pacific theatre of World War II, and the indiscriminate violence in the 4.3 Jeju Massacre directly show the shared tragedy of the two islands; furthermore, they are both located on the frontier of a nation's authority, and thus are symbolic cases. This thesis analyzes Oshiro Tatsuhiro's *Island of the Gods* and Hyun, Ki Young's *Soon's Uncle*, both directly deal with the tragedy of two different but analogous incidents, and question the difference in memory struggle and definitions. Thus, though both novels show a similarity in focusing on and exposing the forbidden memory of mass suicide and massacre, the methods of suggesting the course of memory struggle are different. For example, in contrast to Hyun who took a different approach from the fury, accusations, and violence of South Korea to espoused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Oshiro showed the changes in the form of responding to the mainland Japan.

Key Words

Battle of Okinawa, 4.3 Jeju Island Massacre, mass suicide, massacre, memory struggle

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03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08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09일